

룡곡사람I의 관찰징표특징

리 성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연구를 깊이있게 하려면 사료를 폭 넓게 보고 옳게 연구분석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2권 245페이지)

룡곡사람I는 주체69(1980)년 황해북도 상원군 룡곡리의 제1호동굴유적 제2문화층에서 발굴되였다.

이 글에서는 관찰징표에 기초하여 룡곡사람I의 형태학적특징을 새롭게 밝히고 그 분류학적위치를 론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관찰징표에 의한 룡곡사람I의 형태학적특징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룡곡사람I의 머리뼈는 기본적으로 잘 보존되어있다. 다만 웃머리뼈와 왼쪽 옆머리뼈의 일부, 오른쪽 젓도드리부, 큰뒤머리구멍변두리, 왼쪽 코마루의 일부, 머리통뼈기저부의 일부가 손상되었을뿐이다.

머리뼈는 결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특히 뒤머리뼈결면의 뼈주름이 잘 발달되어있다.

룡곡사람I의 머리뼈는 현대사람보다 더 길고 넓으며 낮다.

우에서 본 머리뼈형태는 란원형(Ovoides)이며 그의 가장 큰 너비는 길이의 3분의 1뒤에 놓인다. 옆에서 본 머리통뼈는 앞테두리선이 낮고 끝은편이며 웃테두리선은 비교적 편평하다. 이 머리뼈의 최대너비는 웃부분에서 넓다. 따라서 머리뼈측벽상태는 짧은머리형에서 보편적인 둥글게 돌출된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되어있다.

머리뼈의 뇌수용적은 대략 1 450cm³로서 현대사람보다 현저하게 작다.

룡곡사람I의 앞머리뼈에는 눈두덩이 잘 발달되어있다. 눈두덩은 바깥쪽으로 눈확웃모서리의 절반까지 가서 사라지고 그대신 평편한 눈확바깥삼각부가 이어진다.

현대사람은 눈두덩이 약하게 발달되어 눈확바깥삼각부와 분리되어있을뿐아니라 눈확안쪽 웃모서리나 눈두덩사이부와의 뚜렷하게 분리되어있다.

룡곡사람I는 눈두덩과 눈확바깥삼각부는 분리되었으나 눈두덩사이부와 눈확안쪽웃모서리는 융합되어있다. 눈두덩사이부는 부풀고 앞쪽으로 돌출되어있는데 현대사람의 약한 눈두덩사이부와 차이난다.

룡곡사람I의 량쪽 앞머리굴은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르다. 왼쪽 앞머리굴은 오른쪽 것보다 훨씬 크다. 왼쪽 앞머리굴은 방형이며 오른쪽 앞머리굴은 작은 삼각형이다.

이 앞머리뼈에는 화살뼈마루가 뚜렷하게 발달되어 이마뼈의 결면이 배밀모양과 비슷하다. 화살뼈마루는 이마의 량쪽에 있는 앞머리뼈볼루기들사이에서 시작되어 웃머리뼈의 량쪽에 있는 웃머리뼈볼루기들사이에서 끝난다. 화살뼈마루는 앞숯구멍점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앞뒤물림선을 따라 계속 뒤로 나가다가 오른쪽 가지는 웃머리뼈볼루기부위에서 끝나지만 왼쪽 가지는 계속 연장되어 영양구멍이 있는 부위까지 이른다. 앞숯구멍점은 상대적으로 뒤쪽에 놓여있다.

룡곡사람I의 옆머리뼈우무기는 그리 깊지 않다. 바위부의 볼루기는 상당히 발달되었으며 매우 거칠다. 이 볼루기는 옆머리뼈바위부로부터 별점까지 사선방향으로 연장된다.

젓도드리는 비교적 작고 거칠며 앞뒤면이 뚜렷하게 경계된다.

룡곡사람I의 뒤머리뼈결볼루기는 상당한 정도로 뼈죽이 나왔으며 결 뒤머리뼈와 덜미선들도 심히 발달되어있다. 웃 뒤테두리선은 비교적 넓은 각원형을 이루었다. 그리고 뒤 아래테두리선은 뒤머리뼈결볼루

기점에서 심히 굽었는데 그의 굽은 각은 약 124° 이다. 뒤머리점은 뒤통수점에 비하여 얼마간 높은 곳에 있는데 현대사람은 이 두점이 같은 높이에 있다. 이와 함께 뒤머리뼈의 속볼루기점은 결볼루기점의 위치보다 아래에 놓인다.

룡곡사람I의 얼굴은 수직으로 수축되고 약간 우무러졌으며 비교적 높은편이다.

눈확은 비교적 높고 거의 방형이며 그 아래변두리는 둥글다. 이와 달리 현대사람은 눈확이 훨씬 높고 아래변두리가 거의 각을 이룬다.

코뼈는 낮고 코마루는 우묵하며 코뿌리점은 비교적 높다. 코배모양구멍은 넓으며 그 아래기슭은 예리하지 않고 낮고 우묵한편이다. 코앞가시는 상대적으로 작다.

웃턱뼈에서 광대뼈돌기의 앞웃면은 앞쪽으로 기울어졌고 웃턱뼈몸의 앞바깥면과 뚜렷한 경사를 이루면서 하나의 깊은 우무기를 형성한다. 광대뼈돌기는 매우 넓고 두꺼우며 어느 정도 뒤로 경사졌다. 광대뼈돌기의 바깥변두리는 둥글며 완만하게 앞바깥쪽으로 뻗어 활모양을 이루었다.

광대뼈활은 기본적으로 눈확귀평면과 같은 수평면상에 있다.

웃턱뼈몸의 웃부분에는 턱뼈구멍(눈확아래구멍)이 발달되어있으며 그 아래에 송곳이우무기가 비교적 크게 발달되어있다. 송곳이우무기의 깊이는 대략 2.0mm이다.

웃턱의 이틀부는 중간정도로 넓고 두터우며 약한 이틀돌출을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현대사람은 이틀부는 이발크기에 관계되어 감소되며 강한 이틀돌출을 나타낸다.

입천장은 표면이 비교적 매끈하고 깊은편이다.

룡곡사람I의 아래턱뼈는 왼쪽가지 뒤부분과 웃부분이 약간 손상되고 기본적으로 잘 보존되었다. 아래턱뼈의 결면은 비교적 거칠며 뼈주름들이 매우 뚜렷하게 발달되

어있다. 아래턱뼈는 전체적으로 크고 육중하며 턱볼루기가 발달되어있다. 즉 턱오무기가 발달되었고 턱삼각은 이음부 아래변두리앞면에서 산봉우리모양을 이루지 않고 뚜렷하게 도드라져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턱돌출정도는 현대사람에 비하여 뚜렷하지 않다.

아래턱뼈의 안쪽이틀변두리에는 량쪽에 대칭적인 타원형볼루기가 있으며 두배살우무기는 현대사람에 비하여 크고 더 울퉁불퉁하다. 아래턱뼈의 턱가지는 넓은데 턱가지의 큰 너비와 작은 너비의 차이는 현대사람과는 달리 작다. 부리돌기는 끝이 둔하고 앞웃쪽으로 향하였다. 턱가시는 아래턱뼈의 안쪽에 발달되어있는데 현대사람에 비하여 훨씬 크고 둔한편이다.

이와 같이 룡곡사람I의 머리뼈, 웃턱뼈, 아래턱뼈에서는 뚜렷한 관찰징표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룡곡사람I의 분류학적위치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룡곡사람I의 분류학적위치를 밝히는데서 관찰징표도 계측징표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관찰징표는 일정한 형태학적특징에 기초하여 징표를 구성하고 그 징표의 발달 및 출현정도를 평가하여 그 인류학적특징을 밝히는데 이용되는 징표이다. 이 징표는 수값으로 표현할수 없는 부위들을 연구하는데서 특히 의의가 크다.

관찰징표에 의한 룡곡사람I의 분류학적 위치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알려진 인류화석들과 이웃지역 인류화석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해명할수 있다.

룡곡사람I의 관찰징표특징에서는 고인에 게서 보여지는 원시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우선 머리뼈의 크기와 형태에서 잘 알수 있다.

룡곡사람I는 머리뼈가 길고 우에서 본 머리뼈의 형태는 란원형을 이룬다. 이 특징

은 긴머리형의 집단들인 원인, 고인에서 잘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리고 신인들인 우리나라 롱곡사람Ⅳ, 중국의 산정동인 101호, 102호, 103호, 류강인에서도 잘 보여진다.

그러나 짧은머리형의 집단들에서는 머리가 짧고 위에서 본 머리뼈의 형태는 둥근형을 이룬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신인인 미나또가와인 I, 인도네시아의 신인인 와자크인 I에서 이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것은 긴머리형집단과 짧은머리형집단의 머리뼈형태와 크기가 서로 구별되는데 기인된다.

인류진화발전과정에 뇌수의 용적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머리뼈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반면에 머리뼈너비는 더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원인, 고인, 신인에로의 인류진화발전과정에 머리뼈형태는 긴머리형으로부터 짧은머리형으로 변화되었으며 시대를 반영하는 징표로 설정될 수 있다. 이로부터 롱곡사람Ⅰ의 머리뼈가 길고 란원형을 이룬 특징은 비교적 이른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롱곡사람Ⅰ의 머리뼈최대너비는 비교적 옷쪽에 놓이며 머리뼈측벽상태는 수직이다. 일반적으로 원인, 고인들의 머리뼈최대너비는 머리뼈기저부분에 놓이며 뒤에서 볼 때 머리뼈형태는 밑부분이 넓은 삼각형에 유사하다. 반면에 현대사람들은 머리뼈최대너비가 옷부분에 놓이며 뒤에서 본 머리뼈형태는 둥근형이다.

그런데 롱곡사람Ⅰ, 산정동인 101호, 102호, 103호들은 머리뼈최대너비가 비교적 옷쪽에 놓이며 머리뼈측벽상태는 수직형으로서 모두 긴머리형이다. 한편 신인들인 미나또가와인 I, 류강인은 머리뼈최대너비가 아래부분에 놓이며 머리뼈측벽상태는 둥근형으로서 각각 짧은머리형, 중간머리형에 속한다.

따라서 롱곡사람Ⅰ의 머리뼈최대너비와 측벽상태는 고인은 물론 현대사람과도 차

이하며 신인의 긴머리형집단들에서만 보여지는 특징이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이처럼 머리뼈가 길고 란원형을 이루며 머리뼈최대너비가 비교적 옷쪽에 놓여 수직의 측벽상태를 이룬 것은 롱곡사람Ⅰ이 비교적 원시적인 머리뼈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앞머리뼈의 특징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롱곡사람Ⅰ의 앞머리뼈에는 눈두덩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인, 고인들은 눈두덩볼루기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눈두덩, 눈두덩사이부, 눈확바깥삼각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실례로 고인인 렉포사람은 눈두덩과 눈두덩사이부를 구조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쭉 두드러져 나와있으며 좌우측의 눈두덩볼루기가 눈두덩사이부에서 끊어지지 않고 같은 굽기로 이어진다.

반면에 현대사람은 눈두덩이 약하게 발달되어 눈확바깥삼각부와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눈확안쪽 옷모서리나 눈두덩사이부와도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롱곡사람Ⅰ은 눈두덩과 눈확바깥삼각부는 분리되었으나 눈두덩사이부와 눈확안쪽 옷모서리는 아직 융합되어 있다. 이 특징은 신인인 만달사람의 눈두덩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리고 롱곡사람Ⅰ의 눈두덩사이부의 돌출 정도는 고인단계사람들에 이를 정도이다. 코뿌리점(n)과 이마점(me)을 연결한 선우에서 눈두덩사이부의 높이가 신인들은 물론 고인들보다 높으며 코뿌리점과 눈두덩사이웃점(sg)을 연결한 선우에서의 눈두덩사이부의 높이도 고인의 크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롱곡사람Ⅰ은 눈두덩사이부가 많이 돌출되었고 눈두덩사이부 옷함물부가 상대적으로 깊다. 이외 롱곡사람Ⅰ은 만달사람처럼 눈두덩사이부의 두께가 비교적 두껍고 코뿌리점에서의 이마경사각과 G점에서의 이마경사각의 차이가 있다.

룡곡사람I의 눈두덩의 발달상태는 현대 사람은 물론 다른 신인들보다도 더 잘 발달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룡곡사람I의 눈두덩발달상태는 고인에서 갓 벗어난 신인의 특징과 같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룡곡사람I의 앞숯구멍점은 상대적으로 뒤쪽에 놓인다. 앞숯구멍점은 인류진화발전과정에 위치가 변화된다. 즉 진화발전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앞숯구멍점은 상대적으로 높이 위치하면서 앞쪽에 놓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눈두덩부위가 퇴화되면서 앞머리뼈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룡곡사람I의 앞숯구멍점이 뒤쪽에 놓인것은 고인에 가까운 특징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룡곡사람I의 앞머리뼈에는 화살뼈마루가 뚜렷하게 발달되어있다. 화살뼈마루는 주로 원인, 고인단계에 존재하였으며 신인단계에서는 일부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현대사람에게서는 전혀 발달하지 않는다.

룡곡사람I에서 보여지는 화살뼈마루는 신인들인 만달사람, 산정동인 101호, 102호, 자양인의 앞머리뼈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룡곡사람I의 앞머리뼈에서 보여주는 특징들은 원시적인 앞머리뼈특징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뒤머리뼈의 특징에서도 잘 알수 있다.

룡곡사람I의 뒤머리뼈결불루기는 상당한 정도로 뼈죽이 나왔으며 결뒤머리뼈와 덜미선들도 심히 발달되어있다. 그리고 뒤아래테두리선은 뒤머리뼈결불루기점에서 심히 굽었는데 그의 굽은각은 약 124° 이다.

룡곡사람I에서 보여지는 뒤머리뼈결불루기의 특징은 산정동인 101호, 102호, 103호와 류강인에서도 잘 나타나며 반면에 미나또가와인 I 과 현대인들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특징은 네안데르탈인과 고인들에서 흔히 보여지는 원시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뒤머리점은 뒤통수점에 비하

여 얼마간 높은 곳에 있는데 현대사람은 이 두점이 같은 높이에 있다.

이와 함께 뒤머리뼈의 속불루기점은 결불루기점의 위치보다 아래에 놓인다. 이러한 특징은 베이징원인, 자와원인, 고인들인 대려인, 허가요인, 크라피나인, 스피인I들의 뒤머리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람들은 대체로 이 불루기점들이 같은 높이에 있다. 이것은 바로 룡곡사람I의 뒤머리뼈의 특징들이 원인이나 고인들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그것은 또한 얼굴뼈에서도 나타난다.

룡곡사람I의 얼굴은 수직으로 수축되고 약간 우무러졌으며 비교적 높은편이다. 눈확은 비교적 높고 거의 방형이며 그 아래변두리는 둥글다. 이 특징은 신인들인 산정동인 101호, 102호, 103호, 류강인, 와자크인I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미나또가인I,일본엣류형인 조몽인, 현대사람에서는 눈확이 훨씬 높고 아래변두리가 거의 각을 이룬다.

코뼈는 좁고 코마루는 우묵하며 코뿌리점은 비교적 높다. 코배모양구멍은 넓으며 그 아래기슭은 예리하지 않고 낮고 우묵한 편이다. 코앞가시는 상대적으로 작다. 베이징원인, 자와원인에서도 코앞가시가 작는데 이와 달리 현대사람은 잘 발달되어있다.

웃턱뼈에서 광대뼈돌기의 앞웃면은 앞쪽으로 기울어졌고 웃턱뼈몸의 앞바깥면과 뚜렷한 경사를 이루면서 하나의 깊은 우무기를 형성한다. 광대뼈돌기는 매우 넓고 두꺼우며 어느 정도 뒤로 경사졌다. 광대뼈돌기의 바깥변두리는 둥글며 완만하게 윗바깥쪽으로 뻗어 활모양을 이루었다.

광대뼈활은 기본적으로 눈확귀평면과 같은 수평면상에 있다.

웃턱뼈몸의 윗부분에는 턱뼈구멍(눈확아래구멍)이 발달되어있으며 그아래에 송곳

이우무기가 비교적 크게 발달되어 있다. 송곳이우무기의 깊이는 대략 2.0mm이다. 이 특징은 신인들인 미나또가인I, 산정동인 103호, 와자크인I에서도 잘 나타난다.

웃턱의 이틀부는 중간정도로 넓고 두터우며 약한 이틀돌출을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현대사람의 이틀부는 이발크기에 관계되어 감소되며 강한 이틀돌출을 나타낸다. 입천장은 표면이 비교적 매끈하고 깊은편이다. 이것은 룡곡사람 I의 얼굴뼈 특징도 현대사람들과는 달리 원인, 고인에 유사한 원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 룡곡사람I에는 뼈결면이 거칠고 뇌수용적이 작은것, 입천장표면이 비교적 매끈한것, 아래턱뼈의 안쪽타원형볼루기가 발달된것 등 원시적인 특징들도 있다.

한편 룡곡사람I의 관찰징표특징에서는 현대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특징들도 있다. 그것은 눈두덩볼루기가 잘 발달되었으며 광대뼈활이 눈귀평면과 거의 같은 수평면상에 있는것, 옆머리뼈우무기가 그리 깊지 않은것, 아래턱의 턱볼루기가 발달된것, 턱가시가 잘 형성되어있는것 등 현대사람의 특징을 가지고있는데서 잘 나타난다.

이처럼 룡곡사람I은 고인에 이어지는 원시적인 특징과 현대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가지고있다.

인류진화발전과정에 고인과 현대사람사이를 이어주는 중간적특징을 가지고있는 것은 바로 신인이다.

그러므로 룡곡사람I은 관찰징표로 볼 때 인류진화발전과정에서 신인단계에 속하는 인류화석이라고 할수 있다.